

《殷虛文字丙編》001~004譯註

김 혁*

<목 차>

1. 서론
2. 《殷虛文字丙編》001~004譯註
 - 2.1 《丙編》001
 - 2.2 《丙編》002
 - 2.3 《丙編》003
 - 2.4 《丙編》004
3. 결론

1. 서론

《殷虛文字丙編》(이하 《丙編》으로 약칭)은 張秉權이 《殷虛文字乙編》 및 기타 甲骨들을 綴合하고 정리한 후 새롭게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서 《殷虛文字乙編甲骨復原選集》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著作이다.¹⁾ 《丙編》에 수록된 甲骨들은 YH127坑에서 출토된 것들로 대부분이 完整的 거북의 腹甲 및 背甲들이며²⁾,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成套卜辭가 많아서 甲骨文을 通讀 하는데 있어서 기초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類組의 분류체계로 보면 《丙編》에는 賓組卜辭가 주를 이루고 약간의 午組卜辭, 子組卜辭가 수록되어있어서 다양한 類組의 卜辭를 접할 수는 없지만,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張秉權, 《殷虛文字丙編》,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57.

2) 《丙編》에 수록된 甲骨片 가운데 2片을 제외한 나머지 甲骨은 모두 腹甲이다.

전체 甲骨卜辭 가운데 賓組卜辭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丙編》에 대한 註釋과 翻譯은 국내 甲骨文 研究의 토대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丙編》001~004, 즉 총 두 편의 完整한 甲骨, 그 正反 양면에 기록된 卜辭들을 譯註하고자 한다.

2. 《殷虛文字丙編》001~004譯註

2.1 《丙編》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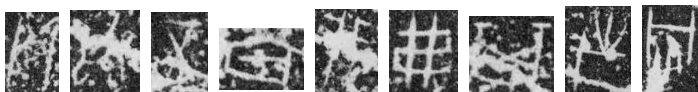
【圖版情報】

《合》6834正. 賓組過渡一類, 賓組一類.³⁾

【圖版字形·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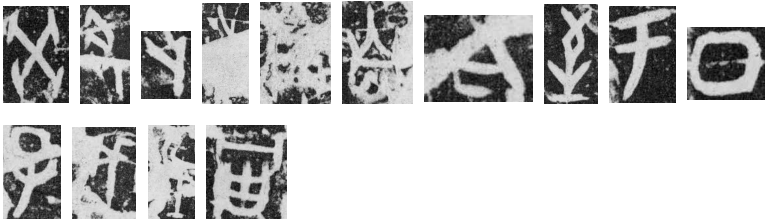
壬子卜, 爭鼎(貞): 自今日 [1] 我 [2] 戔(翦) [3] 𠄎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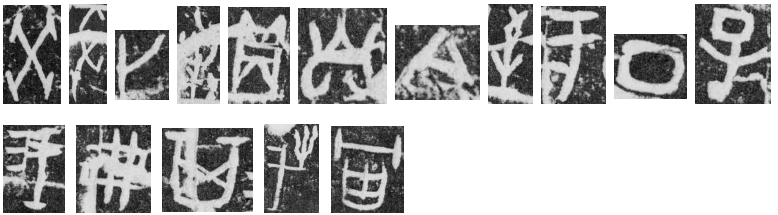
鼎(貞): 自五日 [5] 我弗其戔(翦)𠄎.

3) 본 논문에서 甲骨文 類組를 구분하는 기준은 王卜辭의 경우 黃天樹의 分법을, 賓組卜辭의 세분화는 奇川龍의 分법을 따른다. 黃天樹,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簡體版)》, 北京: 科學出版社, 2007. 奇川龍, 《賓組甲骨文分類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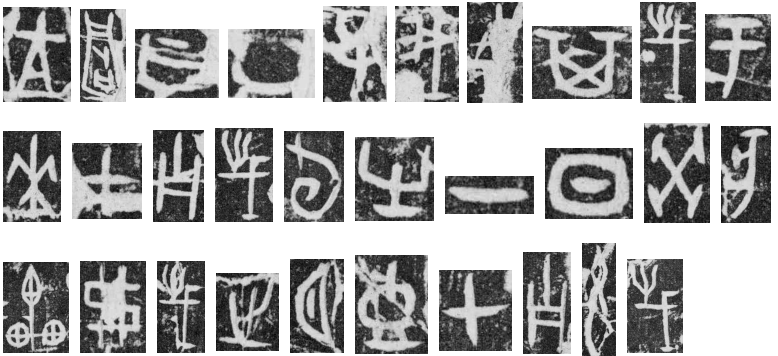
(2)



癸丑卜，爭鼎(貞)：自今至于丁巳我戔(翦)𠄎。



癸丑卜，爭鼎(貞)：自今至于丁巳我弗其戔(翦)𠄎。



王固(占)曰： 丁巳我毋 [6] 其戔(翦)。 于來甲子戔(翦)。 旬出(有)
 [7] 一日癸亥(衝) [8]， 弗戔(翦)。 之夕(嚮)甲子 [9]， 允戔
 (翦)。

(3)



庚申卜，王鼎(貞)：余 [10] 伐 [11] 不 [12] 。



庚申卜，王鼎(貞)：余易(勿) [13] 伐不。



庚申卜，王鼎(貞)：余伐不。三月。



庚[申]卜，王鼎(貞)：余易(勿)伐不。



[庚]申卜，[王]鼎(貞)：隻(獲) [14] 缶 [15] 。



雀 [16] 弗其隻(獲)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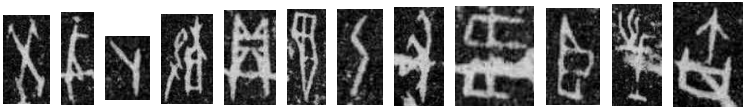


庚申卜，王鼎(貞)：雀弗[其]隻(獲)缶。



(7)

辛酉卜，設：翼(翌)壬戌不至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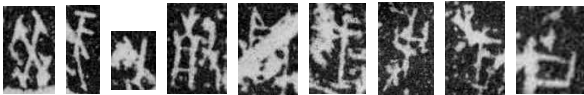


(8)

癸亥卜，設鼎(貞)：翼(翌)乙丑多臣 [18] 戔(翦)缶.



翼(翌)乙丑多臣弗其戔(翦)缶.



(9)

癸亥卜，設鼎(貞)：我史(使) [19] 戔(翦)缶.



癸亥卜，設鼎(貞)：我史(使)毋其戔(翦)缶.




(10)

乙丑卜，設鼎(貞)：子商 [20] 弗其隻(獲)先 [21] .









(11)

丙寅卜, 爭: 乎(呼)  [22] 敖侯專 [23] 求 [24] 叔 [25] .



鼎(貞): 𠄎 [26] 弗其由(墟)王史(事) [27] .


【註釋】


- [1] 自今日은 ‘自今五日’의 생략형으로 ‘지금으로부터 5일 뒤’의 날을 의미한다. 아래 ‘自五日’도 마찬가지이다.
- [2] 我는 甲骨文에서 보통 복수 1인칭 대명사를 나타내며 ‘우리’를 뜻한다.⁴⁾
- [3] 은 창(戈)으로 초목을 베는 형상을 본뜬 글자로 ‘翦’으로 읽으며 ‘翦除’, ‘翦滅’의 뜻을 나타낸다.⁵⁾
- [4] 는 상단 편방이 ‘一’, 하단 편방이 ‘西’인 글자로 ‘西’를 聲符로 보아 ‘西’로 읽는다. 武丁時期에 출현하는 方國名이다.
- [5] 自五日是 ‘自今五日’의 생략형이다.
- [6]  ()는 ‘女’자이다. 甲骨文에서 가 여자를 뜻하는 {女}와 어머니를 뜻하는 {母}를 나타내는데, 이는 古文字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一字多用현상이다. 여기서의 는 기본적으로 {母}를 나타내는 글자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이 구문에서 쓰인 용법은, 假借하여 부정사 {母}를 나타내고 있다.

4)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1, 23~24쪽.


5) “戔”을 ‘翦’으로 읽는 해석은 陳劍이 吳振武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臺灣師範大學國文系, 中研院歷史語言研究所編, <“戔”字的形音義——爲紀念殷墟甲骨文發現一百周年而作甲骨文語法學>, 《甲骨文發現一百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 1998, 287~304쪽. 吳振武, <合33208號卜辭的文字學解釋>, 《史學集刊》, 2002-1期, 20~23쪽. 陳劍, <甲骨文“戔”字補釋>, 《甲骨文考釋論集》, 北京: 線裝書局, 2007, 99~106쪽.

[7] 𠄎는 본래 어떤 글자인지 아직 모른다. 甲骨文에서 ‘又(有)’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데, 보통 1기, 2기 전기(師組, 賓組)에 출현하고, 1기 후기 이후(歷組, 出組, 何組, 無名類, 黃類)에는 ‘又’자로 대체된다.⁶⁾ 여기서서는 두 자리 정수에 나머지 자리를 더한다는 의미로서 {又}의 용법으로 쓰였다.



[8] 은 중국고대의 衝車를 본뜬 象形字로서 ‘衝’으로 읽는다. 여기서서는 동사로서 敵方の 城邑을 향하여 돌진하다’는 의미의(衝)을 나타낸다.⁷⁾

[9] 은 ‘晝’의 初文으로 ‘嚮’으로 읽는다. 《詩經·小雅·庭燎》에 “夜如何其? 夜鄉晨(밤중에 지금은 어느 때인가? 긴 밤 지나 이제 새벽으로 접어드네.)”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에서의 ‘鄉’은 甲骨文 ‘之夕嚮甲子’의 ‘嚮’과 같은 단어를 가리킨다. 따라서 ‘之夕嚮甲子’는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甲子일로 접어드는 시기를 나타낸다.⁸⁾

[10] 余는 甲骨文에서 1인칭 대명사를 나타내며 ‘나’를 뜻하는데, 보통 商王 자신을 가리킨다.

[11] 은 ‘𠄎’에서 ‘𠄎(戈)’의 일부를 생략한 것으로 ‘伐’자의 異體이다.

[12] 不은 보통 부정사로 쓰이는데, 여기서서는 甲骨文 武丁時期에 출현하는 方國名으로 쓰였다.

[13] 𠄎은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 활시위의 떨림을 상형한 글자로 發射를 뜻하는 ‘發’의 初文이며, , 등으로 쓰기도 한다. 假借하여 부정사 {勿}을 나타낸다.⁹⁾ 한 가지 덧붙일 것은, ‘勿’의 경우 ‘不’이나 ‘弗’과

6) 裘錫圭, <說“𠄎”>,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17쪽.
 7) 金赫, 《甲骨文形體的分類與分析——以類組之間形體差異較大的常用字爲中心》, 上海: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6, 468~472쪽.
 8) 裘錫圭, <釋殷虛卜辭中的“𠄎”、“𠄎”等字>,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391~403쪽.
 9) 裘錫圭, <釋“勿”, “發”>,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140~154쪽.

달리 개인의 의지가 반영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甲骨文에서 보통 ‘不’이나 ‘弗’ 뒤에는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동사가 따라 오고, ‘勿’ 뒤에는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동사가 따라온다. 따라서 ‘勿’의 의미는 현대중국어 ‘不要’에 해당하며 ‘~하지 말라’로 해석한다.¹⁰⁾

- [14] 隻은 손으로 새를 포획하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獲’으로 읽는다. 田獵卜辭에서는 주로 사냥물을 포획하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전쟁의 대상인 敵方과 싸워 승리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 [15] 缶는 武丁時期에 출현하는 方國名이다.
- [16] 雀은 武丁時期에 출현하는 人名이다. 바로 위 긍정문에는 ‘雀’을 생략하였다.
- [17] 翼(翌)壬戌不至는 주어가 생략된 형태일 것이다. 다른 卜辭에 “丁亥卜, 翌日戌方不至……(丁亥일에 균열을 내어 점친다. 다음 戌일에 敵方이 오지 않고……)”¹¹⁾라는 문례가 있는데, 본 도판의 卜辭 내용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위주이므로 ‘翼(翌)壬戌不至’는 ‘翼(翌)壬戌方不至’ 또는 ‘翼(翌)壬戌某方不至’의 생략형일 가능성이 높다. ‘至’는 ‘도래하다’는 뜻이다.
- [18] 多臣은 ‘여러 臣들(衆多之臣)’로서 여기서 多是 商末 西周초기에 출현하는 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¹²⁾ 甲骨文에 ‘多祖’, ‘多父’, ‘多子’, ‘多尹’, ‘多工’ 등 ‘多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매우 많이 출현하는데, 이와 같은 구조의 단어로 볼 수 있다. ‘多臣’은 卜辭에서 주로 전쟁이나 사냥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 [19] 我使는 ‘우리의 使者’를 뜻하며, 甲骨卜辭에서 주로 전쟁에 참여한다.
- [20] 子商은 人名으로 子是 신분(王族)을, 商은 이름을 나타낸다. 甲骨文


10) 裘錫圭, <說“勿”>,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15~19쪽.

11) 《合補》9339.

12) 虞萬里, <由甲骨刻辭多字結構說到多諸之音義及其民族與時地>, 《榆枋齋學術論集》,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1, 439~491쪽.

에 ‘子某’의 형식으로 ‘子不’, ‘子安’, ‘子央’, ‘子癸’ 등의 인물들이 출현하는데, 모두 商王의 아들이다.

[21] 先은 方國名이다. 卜辭에서 적대적 관계로서 출현하는 예가 거의 없고, 그저 地名이나 族名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잠시 대적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2] 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문장의 문법적 구조로 볼 때 敎侯專에 대한 사역동사로 쓰였을 가능성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3] 敎侯專은 人名으로 敎는 方國名을¹³⁾, 侯는 신분을, 專은 이름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는 ‘敎國의 侯의 신분을 가진 專’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求是 지네를 본뜬 象形字로 ‘蜺’의 初文이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搜求, 즉 ‘물색하다’, ‘모색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甲骨文에 ‘求雨我’ 또는 ‘求雨娥’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我’, ‘娥’는 假借된 것으로 모두 ‘宜’로 읽어야 한다. 해석하면 ‘雨水의 得宜를 구하다’로 이해할 수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 ‘求年我’ 또는 ‘求年娥’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역시 수확의 ‘ 좋음’, ‘적당함’을 구한다는 뜻이다. 또 ‘求方我’, ‘求方娥’ 또는 ‘求戎我’, ‘求戎娥’의 표현도 종종 보이는데, ‘敵方’ 또는 ‘戎’에 있어서 ‘ 좋음’, ‘적당함’을 구하거나 모색한다는 뜻이므로, ‘전쟁에서 이길 좋은 기회를 모색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我’, ‘娥’를 생략하여 ‘求方’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본 卜辭에서의 ‘求我’ 역시 ‘我’, ‘娥’를 생략한 형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근거로 본 역주는 ‘求我’를 ‘我’과의 전쟁에서 이길 좋은 기회를 모색하다’로 해석한다.¹⁴⁾

[25] 我은 方國名이다.

13) 劉釗, <釋甲骨文籍、義、螻、敖、戠諸字>, 《古文字考釋叢稿》, 長沙: 嶽麓書社, 2004, 10~13쪽.

14) 裘錫圭, <釋“求”>,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274~284쪽.

[26] 𠄎는 人名이다.

[27] 𠄎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于省吾는 ‘𠄎’로 考釋하고 ‘載’로 읽었다. ‘載’는 ‘行’의 의미가 있으므로 𠄎王事’를 ‘왕의 일을 행하다’로 해석하였다.¹⁵⁾ 楊樹達은 ‘𠄎’으로 考釋하고 ‘協’으로 읽었다. ‘協’은 ‘협조하다’는 뜻이므로 𠄎王事’를 ‘왕의 일에 협력하다’로 해석하였다.¹⁶⁾ 陳劍은 ‘由’로 考釋하고 ‘堪’으로 읽었다. ‘堪’은 ‘능히 감당하다’는 뜻이므로 𠄎王事’를 ‘왕의 일을 감당하다’로 해석하였다.¹⁷⁾ 필자는 陳劍의 해석을 따른다.

【翻譯】

(1) 壬子일에 均열을 내고, 爭이 점친다. 오늘부터 5일 후에 우리는 𠄎方을 멸망시킬 것이다.¹⁸⁾

점친다. 오늘부터 5일 후에 우리는 𠄎方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2) 癸丑일에 均열을 내고, 爭이 점친다. 지금부터 丁巳일까지 우리는 𠄎方을 멸망시킬 것이다.

癸丑일에 均열을 내고, 爭이 점친다. 지금부터 丁巳일까지 우리는 𠄎方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왕이 점괘를 보고 말하였다. 丁巳일에 우리는 𠄎方을 멸망시키지 못한

15) 于省吾, <釋𠄎>, 《甲骨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99, 69~71쪽.

16) 楊樹達, <出王事>, 《卜辭瑣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3쪽.

17) 陳劍, <釋出>,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 第三輯,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0, 1-89쪽.

18) 甲骨文 ‘命辭’를 의문문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서양의 David N. Keightley, Paul L-M. Serruys, David S. Nivison, Edward L. Shaughnessy 등의 연구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대륙 학계에도 李學勤, 裘錫圭 등 고문자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필자 역시 ‘命辭’를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볼 것에 동의하며, 본고의 모든 ‘命辭’에는 마침표를 찍고, 번역은 평서문으로 한다. 甲骨文 ‘命辭’의 성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裘錫圭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裘錫圭,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309~337쪽.

다. 오는 甲子일에 멸망시킬 것이다.

11일 후인 癸亥일에 衝車로 敵方의 城邑을 공격하였으나, 멸망시키지 못하였다. 그날 저녁을 지나 다음 甲子일로 접어드는 시기에 과연 멸망시켰다.

- (3) 庚申일에 冪을 내고, 王이 점친다.¹⁹⁾ 나(王)는 不方을 정벌하라(내가 不方을 정벌하는 것이 좋겠다).

庚申일에 冪을 내고, 王이 점친다. 나(王)는 不方을 정벌하지 말라 (내가 不方을 정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4) 庚申일에 冪을 내고, 王이 점친다. 나(王)는 不方을 정벌하라(내가 不方을 정벌하는 것이 좋겠다). 3월에.

庚申일에 冪을 내고, 王이 점친다. 나(王)는 不方을 정벌하지 말라 (내가 不方을 정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5) 庚申일에 冪을 내고, 王이 점친다. (雀이) 缶方과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雀이 缶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 (6) 雀이 缶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 (7) 辛酉일에 冪을 내고, 靑이 점친다. 다음날인 壬戌일에 (敵方이) 오지 않을 것이다.

- (8) 癸亥일에 冪을 내고, 靑이 점친다. 다음 乙丑일에 여러 臣들이 缶方

19) 왕이 직접 占卜에 참여한 것으로, 이에 따라 뒤에 나오는 命辭의 주어를 '王'이 아닌 '余'로 썼다.


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음 乙丑일에 여러 臣들이 缶方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9) 癸亥일에 玁狁을 내고, 靺鞨이 점친다. 우리의 使者들이 缶方을 멸망시킬 것이다.

癸亥일에 玁狁을 내고, 靺鞨이 점친다. 우리의 使者들이 缶方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10) 乙丑일에 玁狁을 내고, 靺鞨이 점친다. 子商이 先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11) 丙寅일에 玁狁을 내고, 爭이 점친다. 敖方의 侯인 專으로하여금 하여 叔方과의 전쟁에서 이길 좋은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라.

(12) 점친다. 斨은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2.2 《丙編》002

【圖版情報】

《合》6834反. 賓組過渡一類.

【圖版字形·釋文】



辛酉卜, 靺鞨鼎(貞): 我亡  (髡) [1] .






(2) 辛酉卜, 殷鼎(貞): 𠄎(憂) [2] .



(3) 𠄎 [3] .

【註釋】



[1]  를 張惟捷은  로 모사하였다.²⁰⁾  은 턱 아래 수염을 본뜬 象形字로 須 또는 髭의 初文이다. 본 卜辭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모른다.

[2] 𠄎는 曷말약이 ‘𠄎’로 考釋하고 ‘禍’로 읽는 설이 가장 보편적이었다.²¹⁾ 훗날 裘錫圭가 肩胛骨 위에 卜兆가 새겨진 모양을 본뜬 象形字로 보고 ‘兆’의 初文으로 考釋하였다. 裘錫圭는 ‘兆’는 定母宵部이고 ‘憂’는 影母幽部이며, 中古音에서 ‘兆’와 ‘憂’ 모두 開口三等字로 韻部가 가깝다고 하였다. 그리고 ‘兆’를 聲符로 삼는 글자가 幽部와 서로 통하는 것(欸와 鉞, 窕와 悠)을 근거로 𠄎(兆)를 ‘憂’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裘錫圭의 설을 따른다.²²⁾

[3] 𠄎은 記事刻辭로서 貞卜에 대하여 貞人이 책임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일종의 사인(簽署)이다.²³⁾

20) 張惟捷, 《殷墟YH127坑賓組甲骨新研》,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13, 59쪽.
21) 郭沫若의 설은 《甲骨文字詁林》을 참고하였다.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9, 2158~2159쪽.
22) 裘錫圭, <說“𠄎”>,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377쪽. 裘錫圭, <從殷墟卜辭的“王占曰”說到上古漢語的宵談對轉>,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485~494쪽.

【翻譯】

- (1)辛酉일에 균열을 내고, 靺이 점친다. 우리는  (髡)함이 없을 것이다.
- (2)辛酉일에 균열을 내고, 靺이 점친다. …… (憂).
- (3)靺.

2.3 《丙編》003

【圖版情報】

《合》7352正. 賓組一類.

【圖版字形·釋文】




己未卜, 爭鼎(貞): 王亥 [1] 求(咎) [2] 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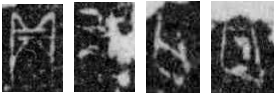


鼎(貞): 王亥不我求(咎) [3] .



鼎(貞): 我其出(有) (憂).

23) 記事刻辭에 대한 연구는 方稚松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랍. 方稚松, 《殷墟甲骨文五種記事刻辭研究》, 北京: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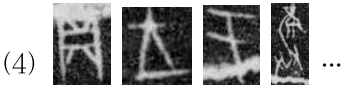
鼎(貞): 我亡囧(憂).



己未卜, 殼鼎(貞): 我于雉 [4] 皐(次)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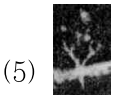
鼎(貞): 我勿(勿)于雉皐(次).



鼎(貞): 王于囧 [6] [皐(次)].







勿(勿)于囧皐(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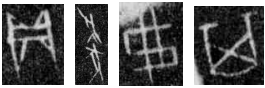
祈(祈) [7] .









勿(勿)于 [8] .


(6)    

□□卜，設鼎(貞)：  (敢) [9] □



鼎(貞)：  (敢)弗其 [10] .

(7)     

夷(惠) [11] 子不 [12] 乎(呼)  (陷) [13] .



易(勿)佳(唯) [14] 子不乎(呼)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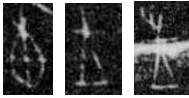
(8)    

夷(惠)子商乎(呼)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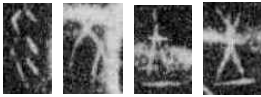


易(勿)佳(唯)子商乎(呼).

(9)



夷(惠)王往 [17] .



易(勿)隹(唯)王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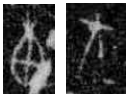


[夷(惠)]王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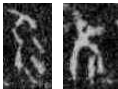


易(勿)隹(唯)王.

(11)



夷(惠)王.



易(勿)隹(唯).

(12)




今夕雨.



今夕不其 [18] .

【註釋】

- [1] 王亥는 上甲微의 아버지이자 契의 6대손이다.
- [2] 求는 ‘求’로 읽어 ‘허물’, ‘재앙’의 의미로 해석한다. 동사로 쓰이면 ‘재앙을 주다’는 뜻이 된다.²⁴⁾
- [3] 賓語인 我가 동사 求(求)의 앞에 놓인 賓語前置이다. 이러한 부정문에 서의 賓語前置현상은 甲骨文 시기에 이미 다수 출현하였다.²⁵⁾
- [4] 는 부리를 강조한 새를 본뜬 글자(形符)와 矢(聲符)로 이뤄진 形聲字로 ‘雉’의 初文이다. 본 卜辭에서는 地名으로 쓰였다.
- [5] 𠂔는 ‘自’에 구별부호인 ‘一’ 또는 ‘二’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군대가 주둔하다’는 뜻의 {次}를 나타낸다. 《春秋穀梁傳·莊公三年》에 “次는 머무르는 것이다(次, 止也.)”라 하였고, 《左傳·莊公三年》에는 “일반적으로 군대가 밖에서 주둔할 때, 1박은 舍라 하고 2박은 信이라하며 2박 이상을 次라 한다(凡師, 一宿爲舍, 再宿爲信, 過信爲次.)”고 하였다. 甲骨卜辭에서 𠂔의 개념이 《左傳》에서처럼 세분화되지는 않았으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통칭하여 𠂔라 한다.²⁶⁾
- [6] 龔은 ‘龍’과 ‘夂’으로 이뤄진 글자로 ‘龔’의 初文이다. 본 卜辭에서는 地名으로 쓰였다.
- [7] 𠂔는 ‘單’(形符)과 ‘斤’(聲符)으로 이뤄진 글자로 ‘祈’의 初文이다. 본 卜

24) 裘錫圭, <釋“求”>,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274~284쪽.

25) 沈培,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2, 19~29쪽.

26) 劉釗, <卜辭所見殷代的軍事活動>, 《古文字研究》第16輯, 北京: 中華書局, 1989, 130~131쪽.

辭에서는 地名으로 쓰였다. 그리고 正反對貞의 부정형이 “勿于”인 것으로 볼 때, “𠄎”은 “于𠄎𠄎(次)”의 생략형이고, “勿于”는 “勿于𠄎𠄎(次)”의 생략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8] “勿于𠄎𠄎(次)”의 생략형이다.



[9] 是 ‘敢’의 초문이다. 《說文》은 ‘敢’에 대하여 “나아가 성취하는 것이다(進取也.)”라고 해석하였다. 甲骨文 ‘敢’은 주로 田獵卜辭나 戰爭卜辭에 출현하는데, 陳絜은 ‘敢’의 ‘進取’라는 의미를 고려할 때, 卜辭에서의 용법이 ‘進犯’, ‘攻擊’, ‘迎擊’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유추하였다.²⁷⁾ 陳劍은 陳絜의 연구를 기초로 한 걸음 나아가 甲骨文的 ‘敢’을 ‘掩’으로 읽어 ‘掩襲하여 짐승을 잡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을 제시하였다.²⁸⁾ 필자는 陳絜, 陳劍의 해석에 동의하여 ‘掩襲하다’로 해석한다.

[10] 弗其 뒤에 ‘擒’ 또는 ‘獲’이 생략되었을 것이다.

[11] 惠(惠)는 佳(唯)와 함께 ‘焦點’을 나타내는 語氣副詞로 쓰이는데, 보통 正反對貞에서 긍정문에서는 惠를, 부정문에서는 唯를 사용한다.²⁹⁾

[12] 子不은 人名이다. 《丙編》001에 대한 주석 20번 참고.

[13] 𠄎은 麋와 凵(坎)으로 이뤄진 글자로 ‘陷麋’를 나타내는 專用字이다. 田獵卜辭에 주로 출현하는데, ‘𠄎(陷鹿)’, ‘𠄎(陷麋)’ 등으로 쓰기도 한다.³⁰⁾

[14] 위 주석 11번 참고.

27) 이 글자를 처음 敢으로 考釋한 것은 丁驪이다. 훗날 陳絜이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丁驪, <讀契記>, 《中國文字》新10期, 美國: 美國藝文印書館, 1985, 75쪽. 陳絜, <說“敢”>, 《史海偵跡》, 香港: 香港新世紀出版社, 2006, 16~30쪽.
28) 陳劍의 견해는 필자가 2009년 가을학기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에서 개설된 陳劍의 《甲骨學》이라는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29) 張玉金, <甲骨卜辭中“惠”和“唯”的研究>, 《古漢語研究》, 1988-1期. 沈培,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2, 30~56쪽.
30) 裘錫圭, <甲骨文字考釋(八篇)>,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82~83쪽.

[15] ䷮(陷穽)가 생략된 형태이다.

[16] ䷮(陷穽)가 생략된 형태이다.

[17] 다른 卜辭에 “貞: 惠王往䷮(陷穽), 擒(점친다. 왕이 가서 함정을 놓아 큰 사슴을 사냥하면 사로잡을 것이다.)”³¹⁾라는 문례가 있는데, 이 문례와 본 圖版의 정황으로 볼 때, “惠王往”은 “惠王往䷮(陷穽)”의 생략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8] 뒤에 ‘雨’가 생략된 형태이다.

【翻譯】

(1) 己未일에 균열을 내고, 爭이 점친다. 王亥가 우리에게 재앙을 줄 것이다.

점친다. 王亥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을 것이다.

(2) 점친다. 우리에게 우환이 있을 것이다.

점친다. 우리에게 우환이 없을 것이다.

(3) 己未일에 균열을 내고, 設이 점친다. 雉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라.

점친다. 雉에서 군대를 주둔시키지 말라.

(4) 점친다. 왕은 龔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라.

龔에서 군대를 주둔시키지 말라.

(5) 𠄎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라.

𠄎에서 군대를 주둔시키지 말라.

www.kci.go.kr

31) 《合》7075正.

- (6) ……균열을 내고, 設이 점친다. 엄습하여 사냥하면…….
점친다. 엄습하여 사냥하면 포획하지 못할 것이다.
- (7)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子不을 명하라(子不을 명하는 것이 좋겠다).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子不을 명하지 말라(子不을 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8)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子商을 명하라(子商을 명하는 것이 좋겠다).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子商을 명하지 말라(子商을 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9)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왕이 가라(왕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왕이 가지 말라(왕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 (10)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왕이 가라(왕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왕이 가지 말라(왕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 (11)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왕이 가라(왕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함정으로 큰 사슴을 사냥하는데) 왕이 가지 말라(왕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 (12)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것이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2.4 《丙編》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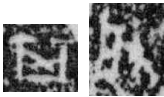
【圖版情報】

《合》7352反. 賓組一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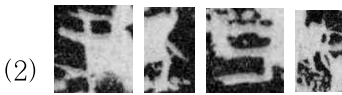
【圖版字形·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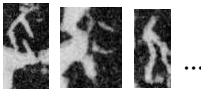
翼(翌)辛酉其出(侑)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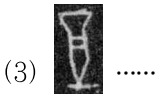
其啓 [2] .



于卬(妣)己 [3] 卬(禦) [4] .



易(勿)于卬(妣)[己].



奠 [5] [6] .

【註釋】

- [1] 𠄎는 假借하여 祭祀動詞 ‘侑’를 나타낸다.
- [2] 啓는 ‘又’와 ‘戶’로 이뤄진 글자로 손으로 문을 여는 모양을 본뜬 圖形式 會意字이다. 本義는 ‘문을 열다’인데 引伸되어 ‘하늘이 맑게 개다’는 뜻으로 쓰인다.³²⁾
- [3] 妣己는 商王의 先妣이다.
- [4] 𠄎(禦)는 災殃이나 禍를 제거하는 祭祀이다.
- [5] 奠은 동사로 쓰이면 제사용품이나 그런 물건들을 배열해 놓는다는 뜻인데, 引伸되어 사람에게 대한 安置의 의미가 되었다. 商王은 자신에게 패배한 國族이나 臣服한 國族의 일부나 전부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 두고 복역에 참여시키곤 하였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奠’이라 칭하거나 그들이 안치된 지역을 ‘奠’이라 칭하기도 한다.³³⁾
- [6] 記事刻辭로서 奠이 일정량의 龜甲을 공납해왔다는 일을 기록한 것이다. 보통 “奠入+숫자” 또는 “奠來+숫자”의 형식으로 기록하는데, 아마 아래 파손된 부분에 “入+숫자” 또는 “來+숫자”가 있었을 것이다.

【翻譯】

- (1) 다음 辛酉일에 侑 제사를 드리고…….
날이 맑게 개일 것이다.
- (2) 妣己에게 禦 제사를 드리라.
妣己에게 禦 제사를 드리지 말라.
- (3) 奠이……

32) 黃天樹, <殷墟甲骨文驗辭中的氣象紀錄>, 《黃天樹甲骨金文論集》, 北京: 線裝書局, 2014, 174쪽.

33) 裘錫圭, <說殷墟卜辭的“奠”——試論商人處置服屬者的一種方法>, 《裘錫圭學術文集》 第5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169~192쪽.

3. 결론

《丙編》001~004의 卜辭은 전쟁 및 사냥과 관련된 일들이 주를 이룬다. 《丙編》001에서는 隳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隳方을 멸망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中·後期の 卜辭에 隳方이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 隳方이 패배하여 商王에게 복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에서는 隳方, 不(攸)方, 缶方, 先方 등이 敵方으로 등장하며 衝이 공격의 한 형태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사냥에서는 함정을 이용하는 방식(陷)과 엄습하여 공격하는 敢(敢)이 등장하고, 王과 王族인 子不, 子商 가운데 누가 사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답을 占卜을 통하여 구하는 내용이 보인다.

편폭의 제한으로 본고에서는 《丙編》001~004에 대한 譯註에만 집중하였다. 甲骨文 및 殷商史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본 譯註가 참고가 되길 바란다.

< 參考文獻 >

- 裘錫圭, <說“弔”>,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釋殷墟卜辭中的“𠄎”、“𠄎”等字>,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釋“勿”、“發”>,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釋“求”>,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從殷墟卜辭的“王占曰”說到上古漢語的宵談對轉>,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甲骨文文字考釋(八篇)>, 《裘錫圭學術文集》 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說殷墟卜辭的“奠”——試論商人處置服屬者的一種方法>, 《裘錫圭學術文集》第5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裘錫圭, <關於殷墟卜辭的命辭是否問句的考察>, 《裘錫圭學術文集》第1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2.
- 奇川龍, 《賓組甲骨文分類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 金 赫, 《甲骨文形體的分類與分析——以類組之間形體差異較大的常用字為中心》, 上海: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6.
- 臺灣師範大學國文系, 中研院歷史語言研究所編, <“戔”字的形音義——為紀念殷墟甲骨文發現一百周年而作甲骨文語法學>, 《甲骨文發現一百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 1998.
- 方稚松, 《殷墟甲骨文五種記事刻辭研究》, 北京: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 沈培,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2.
- 楊樹達, <出王事>, <卜辭瑣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吳振武, <合33208號卜辭的文字學解釋>, 《史學集刊》, 2002-1期.
- 于省吾, <釋繻>, 《甲骨文文字釋林》, 北京: 中華書局, 1999.
-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9.
- 虞萬里, <由甲骨刻辭多字結構說到多諸之音義及其民族與時地>, 《榆枋齋學術論集》,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1.
- 劉 釗, <釋甲骨文藉、義、螳、敖、戔諸字>, 《古文字考釋叢稿》, 長沙: 嶽麓書社, 2004.
- 劉 釗, <卜辭所見殷代的軍事活動>, 《古文字研究》第16輯, 北京: 中華書局, 1989.
- 張秉權, 《殷虛文字丙編》,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57.
-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1.
- 張玉金, <甲骨卜辭中“惠”和“唯”的研究>, 《古漢語研究》, 1988-1期.
- 張惟捷, 《殷墟YH127坑賓組甲骨新研》, 臺北: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13.
- 丁 驩, <讀契記>, 《中國文字》新10期, 美國: 美國藝文印書館, 1985.
- 陳 絮, <說“敢”>, 《史海偵跡》, 香港: 香港新世紀出版社, 2006.
- 陳 劍, <甲骨金文“戔”字補釋>, 《甲骨金文考釋論集》, 北京: 線裝書局, 2007.
- 陳 劍, <釋“出”>,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第三輯,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0.
- 黃天樹,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簡體版)》, 北京: 科學出版社, 2007.
- 黃天樹, <殷墟甲骨文驗辭中的氣象紀錄>, 《黃天樹甲骨金文論集》, 北京: 線裝書局, 2014.

< Abstract >

Oracle Bones of YH127 in Yin Ruins (殷墟YH127坑甲骨)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chievement of excavation in modern China. Its value is inestimable. In this thesis, by witnessing and examining real objects, 001-004 of Fascicle Three of Inscriptions from the Yin Ruins (《殷墟文字丙編》), with the Binzubuci (賓組卜辭) of YH127 in Yin Ruins, are arranged as completely as possible for the use of scholars to study and review.

Key words: YH127 in Yin Ruins (殷墟YH127坑甲骨), Fascicle Three of Inscriptions from the Yin Ruins (《殷墟文字丙編》), Binzubuci (賓組卜辭).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7. 31.	2016. 8. 28.	2016. 9. 6.	2016. 9. 20.	2016. 9. 30.